

조한근(구세군대학원대)

1. 서론

욥기는 지혜전승들이 전통적으로 가르쳐 온 인과응보교리에 기초를 둔 신앙과 실천적 삶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책이다. 이에 일반적 통념으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의인의 고난에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에 크로스(F. M. Cross)는 욥기가 기존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 주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욥기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며 노예들의 해방자로 정치와 법,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므로 “욥기는 고대 이스라엘 종교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주장한다.¹⁾

* 본 연구 논문은 필자가 2014년 9월 26일 제96차 한국구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욥기에 나타난 경제적 양극화

이와 같이 고대 이스라엘종교의 통상적 이념과 다른 신학은 포로후기 유다 공동체 안에서 의인의 고난에 대한 물음으로 나타났다. 이에 욥기는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현실에 대하여 기존의 신학적 가치관으로 설명 할 수 없는 것들을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물음의 배경은 페르시아 식민지시대인²⁾ 포로후기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악인들은 기득권층의 한 분류로서 약한 자들을 확대하고 가난한자들의 생계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집단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기득권층이 이러한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당시 경건한 의인들은 가난한자들과 함께 연대하여 사회개혁을 시도했던 자들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헌신적 사회 참여와 가난한자들을 위한 희생 때문에 사회적 몰락을 감수해야만 했다.³⁾ 이러한 사회 문제는 포로후기의 페르시아 식민통치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욥기의 본문 안에 그 정황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욥기에 나타난 의인에 고통의 문제가 단순히 종교적 차원에서 해석 할 수 있는 문제인가? 라는 질문하게 된다. 즉 욥기에 나타난 ‘고난’의 의미는 경제적 양극화로 초래된 사회문제를 반영한 것이라

현상에 대한 연구 -욥과 친구들의 대화에 나타난 사회계층 분석을 중심으로-”를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이다.

- 1) F. M.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343-344. J. Gerald Janen, *Job*, (Atlanta: John Knox Press, 1985), 8.
- 2) 욥기의 최종 편집 연대는 기원전 6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 자료들은 James L. Crenshaw, “Job” John Barton and John Muddiman(ed), *The Oxford Bible Commentary*(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332. James L. Crenshaw, “Book of Job” David Noel Freedman(ed), (AYBD 3;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863. Carol A. Newsom, “The Book of Job” (NIB 4;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325. 안근조, 『지혜의 말씀으로 읽는 욥기』, (서울: 한들출판사, 2007), 20. 하경택,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욥기 연구』,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6), 23-24. 조한근, “욥기 29장에 나타난 신명기적 윤리 규범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49집 (2013년 9월), 262-285에서 참조하라.
- 3) Rainer Albertz, *A History of Israelite Religion in the Old Testament Period*, Vol II: *From the Exile to the Maccabees*, (Louisville and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497-503.

고 본다. 그래서 본 논문은 욥의 고난에 문제를 경제적 양극화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욥기 안에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화자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이에 필자는 욥기 본문에 등장하는 경제적 양극화로 소외된 사회 계층들을 분석하고, 욥과 친구들의 대화 가운데서 경제적 양극화로 발생한 당시 사회적 상황과 해법제시에 대해 각각 화자들의 시각들을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욥기가 기록될 당시 경제, 정치, 사회적 환경에 대하여 욥기 본문에서는 어떻게 반영 하고 있는지 찾고자 한다.

2. 욥기에 나타난 경제적 양극화의 배경

포로후기 유다 사회는 경제적 불균형으로 극단적인 양극화를 맞게 되었다. 하지만 유다 공동체는 과거 야훼 신앙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고자 했던 개혁적 요소들이⁴⁾ 포로후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에 경제적 양극화는 계층 간의 갈등을 만들어 냈으며 이는 곧 야훼 신앙을 바탕으로 한 윤리적 사회 규범들이 구속력을 잃는 것을 의미하였다.⁵⁾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서 5장에 나타난 기사이다.⁶⁾

4) 신명기에 나타난 개혁들은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특히 군주의 통치이념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데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유다 사회에서 군주가 야훼의 대리자로서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며(신10:18; 14:29), 정의를 실현하고(23:15-16), 관료들의 부패를 척결하는데 있다(신 10:17)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신명기에 나타난 사회 개혁은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첫째로, 왕실의 경제 개혁을 있으며(신 17:16-17) 둘째로 공공부양의 개혁을 들 수 있는데 조세제도의 변화와 부역 그리고 징집제도의 개선을 들 수 있다(신 20:5-7,8). 뿐만 아니라 셋째로, 사회적 관행에 대한 개혁들도 시도되었는데 채권법의 개선(신 15:13-14; 23:20; 24:6, 10, 12, 17)과 토지제도의 개혁(신 15:1)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금지하므로 당시 최빈곤층들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였다. 조한근, "요시아의 개혁운동을 통한 사회적 양극화 극복에 관한 연구", 『신학과 현장』제1집 (2013, 11), 119-126.
5) Rainer Albertz, 『윳글』, 495-496.
6) 알베르츠는 '욥기가 페르시아 시대 후기에 속한 것으로 느헤미야 5장이 강조하는 사회적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윳글, 636.

첫째로, 느헤미야서는 양극화의 원인을 기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과도한 각종 징발이 있었다고 기술한다(느 5:1-5).⁷⁾ 이로 인해 소작농들은 생계 수단을 위하여 자녀를 담보로 잡혀야만 했고(느 5:1-2) 식량과 종자 씨앗을 얻기 위하여 토지와 포도원 그리고 집 등을 저당 잡혔다(느 5:3).⁸⁾ 그뿐만 아니라 당시 페르시아(Persia) 왕에게 바치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토지를 저당 잡혀야만 했고(느 5:4) 그들의 자녀를 노예로 팔아야만 했다.⁹⁾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그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느 4:10).¹⁰⁾

둘째로, 귀족들과 관료들은 일반 가난한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였다(욥 34:30; 35:9). 귀족들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가난한 일반 백성들을 상대로 고리대업을 일삼았는데(느 5:7b) 이는 신명기 법전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었다(신 23:19-20). 이에 더하여 페르시아로부터 임명받은 관료들은 심각한 부정과 부패의 주범이었다(느 5:15). 포로후기의 유다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착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총독의 보좌관들도 총체적인 비리의 주범이었으며 가난한 백성들에게 횡포를 멈추지 않았다.¹¹⁾ 결국 포로후기에 귀족들의 온갖 부정부패로 발생한 경제적 양극화는 사회분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느 5:1).¹²⁾ 포로후기 상

7) 이런 사회적 갈등은 느헤미야가 기원전 444년에 성벽 재건을 위해 유다 백성들에게 강제노역의 형태로 부과한 추가 징세 조치 때문에 생겨났다. 그러나 그 원인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느헤미야 5장1절에서 5절까지에 의하면 당시 가난한자들이 귀족들과 관리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생생하게 기록되었다. 집단들은 늘 부채에 시달리며, 가혹하게 잘못된 채권법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H. H. Ben-Sasson, *A History of the Jewish People*, (Tel Aviv: Dvir Publishing, 1969), 176.
8) K. L. Noll, 『고대 가나안과 이스라엘 역사』, 소형근 역.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09), 406-7. 원제는 K. L. Noll, *Canaan and Israel in Antiquity: An Introduction*.
9) Joseph Blenkinsopp, *Ezra-Nehemiah a commentary*, (London: SCM Press Ltd, 1989), 253-259.
10) Rainer Albertz, 윳글, 495.
11) 장춘식, 『에스라/느헤미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304-305.
12) J. 맥스웰 밀러, 존 H. 헤이스, 『고대 이스라엘 역사』,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597-598. 원제는 J. Maxwell Miller and John H. Hayes, *A History of Ancient Israel and Judah*

황을 보도하고 있는 말라기서에도 경제적 양극화에서 소외된 가난한자들에게 무관심 했던 유다사회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즉 경제적 부를 누리는 기득권층의 무책임한 사회적 행동과 탐욕은 가난한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었다(말 3:5). 엘리거(Karl Elliger)는 말라기 3장 5절의 본문이 신명기나 고대 예언서를 차용한 것이 아닌 현실 고발이라고 주장한다.¹³⁾ 욥기 안에서 인과응보의 교리가 깨져 의인이 고통당하는 현실을 지적하는 것도 사회정의의 실현하지 못하고 경제적 불균형을 바로잡지 못한 문제에서 비롯되었다(욥 6:27; 9:24; 22:6-8).

결국 사회적 양극화는 친 페르시아적 정치기반을 가진 자들이 일반 경제를 잠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욥기는 친페르시아적 귀족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며,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자라고 기술하고 있다(욥 15:25). 또한 그들은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다(욥 15:27). 욥기는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귀족(גִּבּוֹרִים)들을 악인들(רְשָׁעִים)¹⁴⁾과 같은 무리들로 표현하고 있다(욥 21:28). 이에 악인들은 절대 권력을 통하여 사회를 장악했고 법을 집행하는 자들과 긴밀한 결탁 관계를 유지하였다(욥 9:24).

악인들은 강력한 사회적 영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장수하는(욥 21:7)” 안락한 삶도 함께 누렸다(욥 21:13). 이러한 권력은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대물림 되었다(욥 21:8-9).¹⁵⁾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부를 신처럼 떠받드는 자며, 고대 율법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하등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자들이었다(욥 21:15). 악인들은 ‘우리가 주의 도리

를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욥 21:14)’라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즉 “주의 도리(דְּרֹשׁוּתֵינוּ)”는 “당신의 길”로 해석 할 수 있는데 이는 야훼와 유다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¹⁶⁾ 이는 종교적 의무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에도 해당되는 것이었다. 즉 그들은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무슨 이익이 있느냐(וְהָיָה לָנוּ יִשְׂרָאֵל)”는 반문을 하며 율법을 이익의 잣대에서 바라보고 있다(욥 21:15). 포로후기에 욥기가 친 페르시아적 귀족들을 악인으로 묘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생계를 무너뜨리며, 그들의 소유물을 탈취하는 등의 반사회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욥 24:2-12).¹⁷⁾ 이와 같이 욥기는 포로기 이후 사회적 측면에서 악인으로 지칭되는 친페르시아적 귀족들의 압제와 수탈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증언해 주고 있다.

3. 용어 분석

1) 욥기에 나타난 사회계층의 용어들

욥기는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계층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경제적 양극화로 발생한 “가난한자” 혹은 “빈궁한자”를 약자 계층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둘째로 욥기는 경제적 양극화 과정에서 발생한 약자 계층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분류 하고 있다. 또한 욥기의 특징은 경제적 양극화에서 소외된 계층을 묘사하고 있는 방식도 각각 화자별로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6)

13) A. 바이저, K. 엘리거『소예언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323. 원제는 Artur Weiser, Karl Elliger, *Das Buch der zwölf Kleinen Propheten*, (Göttingen:1975).

14) 욥 3:17; 8:22; 9:22, 24; 10:3; 11:20; 15:20; 16:11; 18:5; 20:5, 29; 21:7, 16, 17, 28; 24:6; 27:7, 13; 34:26; 36:6, 17; 38:13, 15; 40:12.

15) Rainer Albertz, *윳글*, 499-500.

16) David J. A. Clines, *Job21-37*, (Nashville, Dallas: Thomas Nelson, 2006), 527-528.

17) Rainer Albertz, *윳글*, 499.

용례 BHS	읍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본문
אֲבִיּוֹן	•	•				5:15; 24:4,14; 29:16; 30:25; 31:19
עָנִי	•				•	24:4,9,14; 29:12; 34:28
דָּל	•	•		•	•	5:16; 20:10,19; 31:16; 34:19,28
יָתוּם	•	•				6:27; 22:9; 24:3,9; 29:12; 31:17,21
אֶלְמָנָה	•	•				22:9; 24:3,21; 27:15; 29:13; 31:16
עֲבָד	•					3:19; 7:2; 19:16; 31:13; 41:4
אָמָה	•					19:15; 31:13
שֹׁכֵר	•					7:1,2; 14:6
גֵּר	•					19:15; 31:32

위 표는 읍기가 기록될 당시 유다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를 묘사하는 9가지 소외계층에 대한 용어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읍은 9가지 모든 계층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4개의 용어 즉 אֲבִיּוֹן(에비온/가난한, 빈궁한), דָּל(달/가난한 자), יָתוּם(야툼/고아) 그리고 אֶלְמָנָה(알마나/과부)를 경제적 양극화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소발은 단지 דָּל만을 양극화 계층을 나타내는 용어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엘리후는 역시 עָנִי와 דָּל을 경제적 양극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빌닷은 경제적 양극화를 나타내는 특정 계층의 어떤 용어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

2) 경제적 양극화의 총칭으로써 가난한자.

읍기는 경제적 양극화를 나타내는 용어로 소외계층을 총칭하는 세 단어들을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첫째로, 경제적 빈곤을 의미하는 אֲבִיּוֹן과 עָנִי를 사용하고 있는데¹⁸⁾ 이

18) R. Laird Harris and Gleason L. Archer, Jr and Bruce K. Waltke,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Chicago: Moody Press, 1980), 684-685.

두 단어는 사전적으로 약간의 상이점이 있으나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특히 이 두 단어는 가난한 도시 일일 노동자들을 지칭하기도 한다(신 24:14-15).¹⁹⁾ 그래서 이 두 단어는 모두 경제적 빈곤으로 가난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그 차이에 대한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는다.²⁰⁾

둘째로, “비천한 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דָּל을 사용하고 있는데 위의 표를 보면 사회계층에 대한 용어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빌닷(Bildad)을 제외한 모든 화자들이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דָּל은 절대적 빈곤을 나타내는 אֲבִיּוֹן과 עָנִי와는 다르게 단지 부족한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²¹⁾ 그러므로 דָּל은 경제적 부와 사회적인 권력의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다.²²⁾ דָּל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있는 증거들은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라는 보도이다(왕하 24:14). 즉 기원전 586년 유다가 멸망한 후 왕족들과 귀족들, 그리고 기술자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갔을 때 사회적 영향력이 없었던 דָּל계층만이 본토에 남아있었다.²³⁾ 그런데 이때에 דָּל은 “그 땅의 비천한 자를 남겨 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다”라는 보도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유다의 귀족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를 할당받아 경작하는 자가 되었다(왕하25:12).²⁴⁾ 그러나 포로기 이후 귀환 공동체와 포로기에 땅을 할당받아 삶의 터전을 잡고 있던 דָּל사이에 토지 소유권 분쟁이 일어 날수밖에 없었다.²⁵⁾ 결국 귀환공동체는 유다지역의 토지를

19) Patrick D. Miller, *Deuteronomy*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173-174.

20) 조한근, “읍기 29장에 나타난 신명기적 윤리 규범에 관한 연구” *윗글*, 266-268.

21) Fabry, “דָּל dal” G. Johannes Botterweck(ed.), (TDOT III: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1978), 213-230.

22) R. Laird Harris and Gleason L. Archer, Jr and Bruce K. Waltke, *윗글*, 190.

23) BenJamin Mazar and Moshe Davis, *The Illustrated History of The Jews*, (New York: The Israel Publishing Institute, 1963), 75.

24) T. R. Hobbs, *2 Kings* (Waco, Texas: Word Books Pulisher, 1985), 352-353.

25) 에스겔서는 포로기 이후의 땅에 대한 배분 문제를 과거 전통에 근거하여 그 소유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겔 47:14). 이에 포로기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Diaspora)의 토지 소유권을 간접적으로 지하고 있다(겔 47:22-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각하였다. 그리고 귀환 공동체는 족보를 강조하며 과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의 상속권을 주장하였다(레 25:23-24; 신 19:14).²⁶⁾ 그런데 페르시아의 후원으로 귀환한 공동체는 **לֵוִי**가 경작하던 농토를 토지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일부 친페르시아적 권력기반을 둔 귀족들은 **לֵוִי**를 확대하며 경제적 착취를 일삼았다. 이에 율기는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확대하고 버렸다”(욥 20:19)”라고 보도하므로 **לֵוִי**가 경제적으로 착취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포로 귀환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하는 계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3) 가난한자의 유형별 분류

율기는 “가난한 자”들을 유형별로 구체적인 분류를 하고 있는데, **אִתּוֹם**(아툼/고아), **אֶלְמָנָה**(알마나/과부)²⁷⁾, **עֵבֶר**(에베드/중), **אָמָה**(아마/여종)와 **גֵּר**(게르/나그네) 그리고 **שָׂכִיר**(사키르/품꾼) 등이 있다. 이들은 경제적 양극화 현상에서 최빈곤층들로 정치사회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첫째로, 율기는 **אִתּוֹם**과 **אֶלְמָנָה**를 경제적 양극화로 발생한 최빈곤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율기는 **אִתּוֹם**과 **אֶלְמָנָה**를 율과 엘리바스 만이 두 용어를 언급하고 있다. 이 두 화자들은 공통적으로 **אִתּוֹם**과 **אֶלְמָנָה**의 경제적 착취와 부당한 확대 행위에 대하여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욥 6:27; 22:9; 24:3, 9). 하지만 율만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욥 29:12, 13; 31:16, 17, 21). 이는 율기에서도 예외 없이 고아와 과부가 착취당하는 현실을 언급하고 있

는데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도덕성을 가능히는 잣대였다(욥 22:9).²⁸⁾

둘째로, 율기는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발생한 계층에 노예를 의미하는 **עֶבֶד**²⁹⁾와 **אָמָה**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둘째로는 전쟁, 납치 등을 통하여 노예로 전락한 경우였다.³⁰⁾ 그리고 여자 노예는 명사형으로 ‘소녀’를 나타내는 단어 **אָמָה**(아마)를 율기에서 사용하고 있다(욥 19:15; 31:13). 이와 유사한 단어로 여종을 **שִׁפְיָה**(시프야흐)라하며 천한 일을 하는 여인들의 일

28) R. Laird Harris and Gleason L. Archer, Jr and Bruce K. Waltke, *율글*, 47.
 29) **עֶבֶד**는 ‘일하다’, ‘섬기다’, ‘노동하다’, ‘봉사하다’, ‘일시키다’, ‘경작하다’라는 뜻을 가진 **עָבַד**(아바드)에서 파생된 단어로 남자노예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말하는 **עֶבֶד**는 노예, 혹은 종과 섬기는 자의 의미에서 확대하여 “겸손”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한다.) Roland De Vaux, *Ancient Israel: Its Life and Institutions*, 80. 메짜드 하사브야후(Meşad Hasabjahu, 메짜드 하사브야후는 율바와 아스돗 사이 지중해의 해안가에 위치해 있으며 아브네 강(Yavneh-yam)에서 남쪽으로 2km 떨어진 작은 요새 도시이다. 1960년대 유대인 학자 나베(J. Nav도)의 주도하에 이곳의 발굴이 이루어 졌는데 요새 성문 근처에서 기원전 7세기 말엽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히브리어로 쓰인 비문이 발견되었다. 이 비문은 일곱 조각 난 상태였고, 전체가 15열로 이루어진 문서이다. Hashavyahu(Yavneh-Yam): A New Philological Study, Maarav 1(1978/9),33-66, 소형근, “메짜드 하사브야후(Meşad Hasabjahu) 비문 이해”, 「구약논단」, (2006), 제21권, 150-151, 재인용.) 지역에서 발견된 비문에도 한 노동자가 지역 책임자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탄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노동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말로 **עָבַד**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나의 주, 재판관님! 들어주세요./그의 중에 일을, 당신의 중/당신의 중은 추수하는 자입니다”라고 기록되었는데 이때 사용된 **עָבַד**는 추수 노동자가 이 관료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Hashavyahu(Yavneh-Yam): A New Philological Study, Maarav 1(1978/9),33-66, 소형근, “메짜드 하사브야후(Meşad Hasabjahu) 비문 이해”, 「구약논단」, (2006), 제21권, 150-151, 재인용. 이러한 현상은 구약성서에서 종종 묘사되고 있는데 “주 야훼여, 당신은 당신의 종에게 나타내시 시작 하셨습니다”(신3:24a)라는 표현에서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당신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다. 율기 역시 율의 겸손함을 묘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종인 “내 종 율(שִׁפְיָה אֵיזֵי עָבַד/아브디 율)”으로 표현하고 있다(욥 1:8; 2:3).
 30) 메소포타미아의 법전들에서는 채무관계로 인하여 노예가 된 경우와 전쟁 포로로 인하여 노예로 전락한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채무관계로 팔린 노예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막고, 일정 기간 노동으로 봉사하면 해방시켜 주는 법들이 제정되었다. Laws of Uru-Inimgina xi19-31와 Code of Hammurabi xxvi Rv.iii 54, 참조. 또한 전쟁노예를 해방시켜 자유를 주고, 노예들에게 의료보장을 해주는 특별한 법조항들도 있었다. Laws of Lipit-Ishtar ii1-15와 Edict of Ammisaduqa EA ii 20-22, 의료보장에 관해서는 함무라비 법전(Code of Hammurabi) L217조, 참조. 구약성서 역시 이와 유사한데 경제적 채무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노예(신 15:12)와 전쟁으로 포로가 되어 노예로 전락한 경우(신 20:14)를 모두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노예들을 함부로 압제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적인 문제로 노예가 되었을 경우 일정기간 노동봉사를 하면 면제가 되었고, 전쟁노예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었다. Roland De Vaux, *Ancient Israel: It's Life and Institution*, (Grand Rapids and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7), 80-82.

23) 그러나 포로기 당시 토지의 경작권을 부여 받은 “비천한자들” 즉 “예루살렘 주민”들로 묘사된 사람들에게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겔 11:15).
 26) 김지은, 「포로와 토지 소유」(서울: 한울출판사, 2005), 181-184
 27) 구약성서에서 과부를 의미하는 **אֶלְמָנָה**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인데 유다의 아들이었던 엘리 죽자 다람은 과부가 되었다(창 38:11).

반적인 명칭으로 남종과 구분하는데 사용한다(창 16:1; 레 19:20; 신 28:68). 욥기는 사회적 계층 질서를 의미하는 종(עֶבֶד)과 주인(אֲדוֹן/아돈)을 대비하여 나란히 기술하기도 한다(욥 1:19). 또한 욥기는 עֶבֶד가 힘든 노동에 시달려야 했으며,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휴식이나 쉼을 보장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욥 7:1-2).

셋째로, ַגַּר는 전쟁, 기근 등과 같은 환경으로 인해 자신들의 삶에 타격을 입고 떠돌거나 이주해온 사람들을 지칭한다.³¹⁾ 이에 욥기는 이들을 “לֹא־יָדָעְתִּי” (로 아다티/모르는 사람)로 묘사하고 있다(욥 29:16b). 히브리법전은 ַגַּר가 사회, 경제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출 22:21; 23:9; 레 19:33; 신 14:29; 16:11, 14; 24:14, 17, 19, 20, 21; 26:11-13; 27:19)³²⁾ 생존권을 보장 받도록 하고 있다(레 19:9). 특히 불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그들의 권리가 침해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신 1:16; 24:17)³³⁾ 욥기 역시 ַגַּר를 사회적 보호대상자로 인식하고 있었다(욥 31:32).³⁴⁾ 욥기는 ַגַּר를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외부에서 이주하여 정착한 ‘모르는 사람’ 기술하고 있다(욥 29:16).³⁵⁾

넷째로, 노동자 계층을 나타내는 שָׂכִיר (사키르/품꾼)이다(욥 7:1; 14:6). שָׂכִיר들은 אֲבוֹיִן과 עָבִי의 상태에 있는 자들로 경제적 최빈곤층으

로 묘사하고 있다(신 24:15, 15).³⁶⁾ 그래서 히브리 법전은 שָׂכִיר들에 대하여 학대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레 19:13; 25:6; 신 24:14) 그들을 학대 하는 행위는 그들이 일한 품삯을 주지 않는 것이다(신 24:15a; 말 3:5). 만약 그 품삯을 미룰 경우 שָׂכִיר에게 생계의 위협을 주는 행위였다. 그래서 욥기는 שָׂכִיר를 “그의 삯을 기다린다”고 묘사하고 있다(욥 7:2).

4.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친구들의 발언

1) 엘리바스의 발언

엘리바스는 אֲבוֹיִן과 ַגַּר 계층에 있는 자들이 חָזָק (하자크/강한자)들로부터 학대 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욥 5:15-16).³⁷⁾ 이에 근거하여 엘리바스는 욥이 가난한 자들을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착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욥기는 욥에 대하여 기득권을 가진 부유하고 유력한 자로 소개하고 있다(욥 1:3). 그러므로 엘리바스는 욥과 같은 기득권층들이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이 가난한 자들에게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첫째로, 엘리바스는 욥의 죄를 이유 없이 형제의 물건을 저당잡고 헐벗은 자의 옷을 벗겼다고 고발하고 있다(욥 22:6). 이는 단지 물건을 갈취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넘어서 채무관계나 다른 법정 소송들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다.³⁸⁾ 그리고 자신의 소작농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히브리인들의 법전에서는 절

31) D. Kellermann, “גֵּר gur; גֵּר ger” G. Johannes Botterweck(ed.), (TDOT II;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9), 442-449.
 32) Duane, L. Christensen, *Deuteronomy* (Waco, Texas: Word Book Publisher, 2001), 555; Ronald, E. Clements, *The Book of Deuteronomy* (Nashville: Abingdon Press, 1998), 467.
 33) 신명기는 ַגַּר의 공정한 재판에 대하여 매우 강조하고 있다. 신명기는 생방 간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같이 동족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이주해온 ַגַּר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라고 강조한다(신 1:16). 그리고 ַגַּר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다(신 24:17).
 34) H. H. Rowley, *The Book of Job* (Michigan: Eerdmans, 1980), 188; John E. Hartley, *The Book of Job* (Michigan: Eerdmans, 1988), 391-392.
 35) ַגַּר에 대한 보호규정은 첫째로,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공적부조 기능을 본토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조치들이 있다(출 23:9, 12; 레 19:10; 23:22; 25:6, 23, 35, 47; 신 14:29; 16:11, 14; 24:19-21; 26:11-13). 둘째로,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학대하지 않는 것이다(출 22:21; 레 19:33; 신 24:14). 셋째로,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다(신 1:16; 24:17; 27:19).

36) 강성열 외, 『역사비평주석 신명기』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505.
 37) David J. A. Clines, *룻*, 146-147.
 38) 여기에서 매튜 헨리(Matthew Henry)는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불모 잡으며”를 칠십인역을 본문으로 인용하여 “까닭 없이 네 형제를 불모로 잡았다”로 해석하고 있다. 매튜 헨리, 『욥기 하서기산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88), 66. 원제는 Matthew Henry, *Job*.

대 금지하고 있는 가난한 약자들의 의복까지 벗겨 저당을 잡았다고 비판하였다(출 22:26-27; 신 24:10-13, 17b; 암 2:8; 켈 18:12-13).

둘째로, 엘리바스는 욥의 죄를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으며,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고 고발한다(욥 22:7).³⁹⁾ 엘리바스가 욥에 대하여 나그네와 과부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은 명백한 히브리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암시하고 있다(신 14:29).

셋째로, 욥의 죄를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살고 있다”(욥 22:8)고 비판한다. 즉 욥이 당시 귀족과 법을 집행하는 자들과 결탁하여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고, 그것을 다시 뇌물로 주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고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토지는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닌 부족 공동체에 속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소유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신 19:14). 엘리바스는 이러한 전통적인 토지 개념을 욥이 깨고 있다고 보았다.⁴⁰⁾ 법을 집행하는 자들과 결탁한 부유한자들은 재판에서도 항상 유리하였으며, 그 누군가가 이 악인들을 상대로 정당한 재판을 한다 할지라도 소송에서 결코 승소 할 수 없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엘리바스는 욥의 죄를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다”(욥 22:9)라고 고발하고 있다. 히브리 법전은 과부를 배척하고 고아를 학대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로 인식하였다(출 22:22-24; 신 27:19).⁴¹⁾ 이에 고아와 과부의 생존권에 문제는 당사자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사회적 책임이었다(신 15:5).

히브리 법전은 경제적 양극화에서 생존권을 위협 받는 모든 계층을

사회적 보호 대상으로 삼았는데⁴²⁾ 이를 충족하기 위해 경제 사회적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이스라엘을 “**אֲנִי**(형제/아호)”로 표현하고 있다.⁴³⁾ 엘리바스 역시 가난한자들을 차별해서 안 된다는 히브리 법전의 사상에 근거하여 경제적 양극화 현상에서 착취를 당하는 계층을 **אֲנִי**로 인식하였다(욥 22:6). 이는 엘리바스 역시 가난한자들에 대한 경제 사회적 학대가 곧 가족을 학대하는 것과 같은 중대 범죄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고대 사회의 이념적 가치관 이었던 사회적 평등을 깨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엘리바스는 고대 히브리 법전에 근거하여 경제적 양극화를 고발하고 있다. 또한 욥의 네가지 유형의 범죄 행위는 명백히 히브리법전의 전통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근거로 보면 가난한자들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던 욥과 같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으며 인과응보교리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2) 소발의 발원

소발 역시 경제적 양극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귀족들의 탐욕과 착취로 인한 부의 독점으로 보았다. 그래서 소발은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욥과 같은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버렸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다(욥 20:19a). 또한 귀족들의 탐욕과 착취는 “자기가 건축하지 않은 집을 빼앗는” 행위로 나타났다(욥 20:19).⁴⁴⁾ 여기서 귀족들의 행위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된

42) 출 22:25, 26; 레 19:9-10, 13; 신 15:7-10, 12-14; 24:6-15 참조.

43) 참조. 신 15:2, 7a, 7b, 9; 18:2; 23:19; 24:14. **אֲנִי**는 출애굽기에서 5회, 레위기에서 12회를 사용하고 있으며 신명기에서는 총 38회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사회적으로 가난한 약자들에 대하여 **אֲנִי**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 신명기는 가난한자 계층의 사람들 즉 품꾼, 나그네, 빈곤한 사람들을 가족개념으로 해석하여 **אֲנִי**라고 기술하고 있다. 조한근, “신명기개혁사상에서 바라본 초기 구세군의 사회적 조명에 대한 신학적 연구”, 『구세군역사연구』, 제10집(2014년 봄호), 77-78.

44) ‘건축하지 않은 집을 빼앗기 때문’이라는 구절에 대하여 다후드(Dahood)는 “그가 가난한 자들의 토담집을

39) 엘리바스는 신명기 10장 18절의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라는 구절을 들어 욥이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악인과 같은 존재임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40) 김지은, 율법, 178-201.

41) 이근호, 『욥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244.

않는 분이라는 전통적 가치관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레 19:15; 신 1:17). 이렇게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처벌하시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행동은 악인들의 악한 행위를 심판하는 것이다.⁵²⁾ 그러므로 엘리후는 악인이 자신들의 악으로 인하여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엘리후의 입장은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사회적인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었다.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는 일부 특수 계층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반 백성들을 학대하므로 시작되었다(욥 35:9). 엘리후 자신도 백성들이 학대받아 부르짖는 이유가 “지배자들의 팔에 눌렸기(מִיַּד רֹבֵיטִים /미제로아 랍빔)”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욥 35:9b). 이는 엘리후 역시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근본적으로 권력을 가진 집단들의 횡포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엘리후의 전통 신학에 입각한 가난한 자들의 문제에 대한 변증은 논리적 모순과 함께 사회적 모순을 그대로 들어내는 것이다. 당시 경제적 양극화 극복의 해결방법은 가난한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 기득권층의 탐욕과 착취를 멈추는 것이었다. 즉 권력을 잡은 자들이 가난한자들을 위해 사회제도를 정비하고 히브리 법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규범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4.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욥의 발언

1) 욥의 발언

욥은 엘리바스의 첫 번째 경제적 양극화 논쟁에 대한 비판을 “너희는 고아를 제비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 자이다”라고 답하고 있다(욥 6:27). 즉 욥은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를 처음부터 현실로 받아들였

52) 배정훈, “엘리후의 두 번째 발언과 세 번째 발언” 『욥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8), 306.

다. 이는 인과응보사상이 당시 사회가 처한 현실과 불일치함을 변증하고 있다. 즉 욥의 입장에서 친구들의 충고는 가난한자의 현실을 함께 참여하고 고통을 나누는 존재가 아니라 방관자의 입장에서 오히려 가난한자들을 압제하는 행위라고 비난 한다.⁵³⁾ 욥의 변증은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가난한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현실적 상황에서 고발하고 있다. 그래서 부유한 상류층과 기득권층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유다 백성들이 사회적 약자로 어떻게 전락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다. 욥은 경제적 양극화의 원인을 ①재산의 강제 수용(24:2; 9:24) ②저당권의 남용(9:24; 24:3, 4, 7, 8, 9b, 10a) ③과도한 노예 징발(6:27; 24:9a) ④ 노동력 착취(7:1, 2; 24:5a, 11) ⑤임금 체불(24:6, 10b) 등으로 보았다.⁵⁴⁾

욥은 당시 고대 히브리 법전이 가난한자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욥기 24장에 나타난 현실고발을 조목조목 나열한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⁵⁵⁾ 이는 엘리후의 신학적 변증에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출애굽의 구원신학이 현실에 적용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에 욥은 관념적인 것보다 실천적인 것으로부터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를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에 욥은 구체적으로 기득권층의 탐욕을 고발하고 있다. 기득권층들은 그들의 부를

53)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무죄한자는 형통하고, 악인은 고통당하며 결국 멸망당한다.’는 인과응보의 전통적인 가치관 안에서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았다.

54) 욥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양극화의 원인을 총망라하고 있다. 고아를 제비 뽑으며(6:27a), 친구를 팔아 넘기며(6:27b), 품꾼의 힘든 노동(7:1), 노예가 그들을 몹시 바라며(7:2a), 품꾼이 샴을 기다린다(7:2b), 불공정한 재판(9:24),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24:2a),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24:2b), 고아의 나귀를 몰고 가며(24:3a),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24:3b),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24:4a),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24:4b),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24:5a), 남의 꿀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24:6),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도 덮을 것이 없으며(24:7),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24:8),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24:9a),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으므로(24:9b),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24:10a),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24:10b),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들을 밟느니라(24:11)

55) 욥기 24장 12절에 욥은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창상을 보지 않는다”라고 탄식한다.

확장하기 위해 이웃의 재산을 탈취하였는데 토지 소유권의 몰수였다. 토지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경제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귀족들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표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옮겼다(욥 24:2a). 그리고 그 경계표는 그들이 토지의 소유권자임을 정당화 하였다. 또한 그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취득한 토지를 자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였다(욥 21:8).⁵⁶⁾

더욱이 악인들은 최빈곤층들의 소유를 탈취하여 자신의 부를 축적하였다. 특히 그들은 가난한자의 전집물을 취하지 말라는 규정과 가난한자들에게 저당을 잡은 옷은 해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는 규정을 따르지도 않았다(욥 24:7, 8, 10a).⁵⁷⁾ 그리고 과부나 고아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저당을 잡았으며, 부채나, 임대료가 밀리게 되면 예외 없이 소나 나귀를 가져갔다(욥 24:2b, 3). 당시 과부들은 경제적 수탈의 손쉬운 대상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이는 엘리바스 역시 과부의 경제적 어려움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욥 22:9). 이는 과부가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회 현실을 반영해 주고 있다. 오히려 저당권의 폐악을 악용하는 탐욕스런 귀족의 착취의 대상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⁵⁸⁾

악인들은 가난한자들을 길에 내몰았으며 다시는 구걸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욥 24:4). 또한 부채에 시달리는 가난한자들의 갓난아이까지 쉽게 노예로 삼았다(욥 24:9). 더욱이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일한 품삯을 제때 지불하지 않았고(욥 24:10), 음식과 음료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욥 24:11). 악인들은 노동자들이 헐벗고 굶주려 고통 받아도 전

혀 상관하지 않았다.⁵⁹⁾ 이러한 가난한자들에 대한 착취는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매튜 헨리는 시골에서 지주가 그 가난한 소작인들을 학대하는 것 같이, 도시의 부유한 상인들도 가난한 채무자에게 잔인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도시에서는 이러한 잔인한 행위들이 시골보다 눈에 더 잘 띄고, 억울함을 당하는 당사자들도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정에 호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은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억울함을 당한 가난한 약자들이 신음하고 울부짖더라도, 악인들은 그들의 신음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⁶⁰⁾ 욥은 가난한자의 부당한 착취와 압제의 고통에 문제를 법정에서 조차 해결해줄 수 없는 현실을 탄식하고 있다(욥 24:12). 즉 욥은 귀족에 대해 율법과 사회적 책임의식에 기초한 양극화 극복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였다. 이는 악인으로 대표되는 귀족들이 부를 독점하고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지속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한 고대 히브리 법전들을 무시했기 때문이다.⁶¹⁾

2) 경제적 양극화 극복에 대한 욥의 실천적 방향제시

욥기는 욥이 과거에 행했던 정의로운 삶에 대하여 회고의 형식으로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자 했던 노력들을 묘사하고 있다. 욥과 같은 자들은 악인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사회개혁을 주도하는 자들이었다.⁶²⁾ 이들의 관심사는 경제적 양극화로 빚어진 가난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양한 현실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었다.

첫째로 욥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자 없는 고아를 건져냈다”고 말

56) 매튜 헨리, *룻글*, 66.

57) 신 24:12, 13; 출 22:26 참조.

58) David J. A. Clines, *룻글*, 988.

59) 이근호, *룻글*, 253.

60) 매튜 헨리, *룻글*, 68.

61) Rainer Albertz, *룻글*, 500.

62) *룻글*, 497-498.

하고 있다(욥 29:12). 이에 가난한자가 “부르짖는(בְּרִיחַ/메사웨아)”라고 표현하는데 “부르짖다(בָּרַח)”는 강조를 나타내는 피엘형으로 만 쓰인다.⁶³⁾ 즉 그 외침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단어는 압제당하는 자나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외침을 묘사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출 2:23; 시 39:12; 40:1). 또한 고아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도와줄 자가 없는(לֹא-עֹזֵר)”것을 의미하고 있다. 욥은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다”고 묘사하고 있다(욥 24:9). 이는 보호해줄 아버지가 없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를 의미한다. 욥은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부르짖는 가난한 사람과 도와 줄 사람이 없는 고아를 건져주는 사회개혁을 주도 했던 자였다.

둘째로 망하게 된 자(בְּרִיחַ/오베드)와 과부에 대한 접근이다.⁶⁴⁾ בְּרִיחַ는 아주 비참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이른 사람을 가리킨다(욥 29:13). 알베르츠(Rainer Albertz)는 “망하게된 자”를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자”로 해석하고 있다. 원래 그들은 일정한 재산을 소유한 소작농들을 가리켰던 자들이나 아무런 토지나 재산을 소유하지 못한 과부와 고아들 그리고 빈곤한 자 함께 등장하는 것은 그들의 경제적 위치가 변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⁶⁵⁾ 이는 욥과 같은 부자들의 자선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욥과 같은 일부 특수 계층의 헌신적인 약자에 대한 도움은 과부와 같이 애통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에게 삶의 즐거움을 회복하기에 적절하고 자비로운 것이었다.

63) 욥기 24장 12절에서는 “상한 자가 부르짖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욥기 30장 20절에도 “내가 부르짖는다”는 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두 문장은 모두 “부르짖다”는 의미로 피엘형 동사 “ברח(쉬바)”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
 64) “망하게 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오베드(בְּרִיחַ)는 “망하다”, “파괴되다”에서 파생된 명사로 때로는 영원한 형벌로 인한 완전한 죽음과 멸망을 의미한다(시 83:17).
 65) Rainer Albertz, *윗글*, 496-497.

셋째로, “빈궁한자들”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다. 빈궁한자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난하게 된 자들이다. 욥기 본문은 “소를 볼모로 잡으며”(욥 24:3)와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 나니”(욥 24:4a)라는 묘사를 통해 가난한자들의 채무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또한 가난한자들은 법정 소송에서도 불리한 대우를 받았는데 클라인스는 기득권세력을 가진 자들이 성문에서 재판할 때 가난한자들이 재판관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들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이는 재판에서 가난한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암 5:12b).⁶⁶⁾ 또 “모르는 사람”은 외부로부터 이주해온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⁶⁷⁾ נֶגֶר(나그네)로 번역 할 수 있다.⁶⁸⁾ 이들은 다른 사회적 약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항상 학대와 착취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법정 소송에서는 그들을 위한 증인과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

넷째로, 당시 욥과 같은 일부 개혁가들은 단순히 가난한자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만 하지 않았다. 욥기는 악인의 착취를 “불의한 자의 턱뼈(בֶּטֶן נִיבְלָתָא/메탈레오트 아왈)”로 기술하고 있다(욥 29:17). 욥은 불의한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빨 사이에서 빼어 내는 역할도 하였다. 이는 욥 역시 일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욥 29:4, 7-10). 그러나 욥과 같은 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불의한 자들과 맞서 싸우며 사회 개혁을 주도 하였다. 알베르츠는 이들을 경건한 귀족들 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들은 사회적 갱신을 위하여 자신의 경제적 손실을 감소하는 자들이었다. 결국 이들은 정치적으로도 고립되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⁶⁹⁾ 그러므로

66) David J. A. Clines, *윗글*, 594.
 67) M. H. Pope, *윗글*, 213.
 68) 이근호, *윗글*, 277.
 69) Rainer Albertz, 500-5002.

욥기는 포로후기 욥과 같은 귀족들에 의해 사회개혁을 통한 경제적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느 5:10-11,18).

5. 결론

필자는 욥기의 사회적 고찰을 통하여 욥과 친구들의 대화에 나타난 경제적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각각의 화자들에 입장을 기술하였다.

첫째로, 경제적 양극화의 원인은 부를 독점했던 계층들이 포로후기에 고대 히브리 법전과 같은 사회 규범들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욥과 욥의 친구들은 사회적 부조리에 대하여 공통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즉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는 곧 사회문제였지만 귀족들은 자신의 탐욕에 사로잡혀 가난한자들에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⁷⁰⁾ 오히려 그들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권력과 경제적 부를 누리는 수단으로 삼았다. 그러나 욥기는 욥의 발언을 통하여 전통적 규범을 실천적 삶에 적용하므로 히브리 법전의 진정한 취지를 수호하고자 하였다. 이에 그는 사회적 몰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계속 변론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론의 방법은 자신이 고수했던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행위를 통하여 의와 정의를 증명하고자 했다(욥 29:15). 욥의 친구들은 경제적 양극화에 문제제기를 하는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욥은 히브리 법전의 실천적 적용에 기초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하는 노력이었다.

둘째로, 포로후기 사회정의는 사법체계가 붕괴하므로 흔들리게 되었다(잠 17:23). 이러한 사회적 부조리는 상대적으로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이었다. 즉 부정과 부패가 법정에서 잘못된 판

결을 만들어 내도 재판관들은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잠 18:5).⁷¹⁾ 이는 욥기의 보도에서도 예외는 아닌데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귀족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를 소유하는데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이를 도왔다(욥 9:24). 이러한 부정과 부패는 가난한자들을 더욱더 큰 가난으로 몰아갔으며(욥 24:2-12) 사회적 불신을 가져 왔다. 포로기 이후 예언자들은 이런 부정과 부패를 비난하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스 7:9-10).⁷²⁾ 즉 사법적 부정부패는 포로후기의 경제적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셋째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는 귀족들이 외부의 세력을 이용하여 부를 장악하였다. 이에 제 3이사야서는 포로기 이후 귀족들이 무분별한 탐욕과 술 취함에 사로잡힌 나머지, 땅의 수확물을 집어 삼킬 이방인들을 끌어 들였다고 비판하고 있다(사 56:9-12). 이는 페르시아의 조세 정책이 매우 가혹하여 유대인들의 생활 터전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욥기는 페르시아 세력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불의한자 혹’은 ‘악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물론 모든 귀족들이 다 페르시아의 일방적인 정책을 따라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알베르츠(Rainer Albertz)는 욥과 같은 사람들은 경제적 부를 누리며 높은 수준의 삶을 살면서도 자기의 모든 재산과 사회적인 영향력을 이타적인 차원에서 희생하는 자들이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페르시아 식민통치체제에서 욥과 같은 경건한 자들은 자신들의 희생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보상받지 못했다. 페르시아 시대 당시 욥과 같은 분류의 경건한 사람들은 악인으로 표현되는 또 다른 귀족들, 즉 개인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종교적 책임을 거부하였던 자들에 의하여 정치 사회적으로 밀리게 되므로 권력을

70) Rainer Albertz, *룻*, 504-505.

71) Roland E. Murphy, *Proverbs*, (Waco, Texas: Woed Books Publisher, 1998), 235.

72) Paul L. Redditt, *Haggai, Zechariah, Malachi*, (Grand Rapids: Eerdmans, 1995), 82-83.

않게 되고 결국 사회적인 몰락에 빠지게 되었다.⁷³⁾ 더욱이 신민지 체제는 친 페르시아 성향의 귀족들이 모든 사회 시스템을 통제하므로 정치적 주도권을 바탕으로 경제적 이익을 독점함으로써 빈곤한 자들은 온갖 착취와 억압을 받았다. 이에 포로기 이후의 유다사회는 원천적으로 개혁 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욥기의 무고한자의 고난은 단순히 인간의 고통을 문학적 기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당시 경제 사회적 상황을 보여주는 역사적 진술이다. 이에 욥기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통하여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포로후기에 유다의 경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6. 참고문헌

- 강성열 외, 「‘역사비평주석’ 신명기」(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 김지은, 「포로와 토지 소유」(서울: 한들출판사, 2005).
- 놀 K. L., 「고대 가나안과 이스라엘 역사」 소형근 역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09). 원제 Noll K. L., Canaan and Israel in Antiquity: An Introduction.
- 밀러 맥스웰 J., 헤이스 존 H., 「고대 이스라엘 역사」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원제 Miller Maxwell J. and Hayes John H., *A History of Ancient Israel and Judah*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6).
- 매튜 헨리, 「욥기 하」서기산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88). Matthew Henry, Job.

73) Rainer Albertz, 윗글 514-515.

- 배정훈, 「엘리후의 두 번째 발언과 세 번째 발언」 「욥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8).
- 소형근, 「메짜드 하샤브야후(Mesad Haasaabjahu) 비문 이해」, 「구약논단」 제21권 (2006), 150-151.
- 이군호, 「욥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안근조, 「욥 31장에 나타난 구약성서의 윤리」, 「구약논단」 제36권, (2010), 71.
- _____, 「지혜의 말씀으로 읽는 욥기」, (서울: 한들출판사, 2007).
- 웨이저 A., 엘리거 K., 「소예언서」(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원제 Weiser Artur, Elliger Karl, *Das Buch der zwölf Kleinen Propheten*, (Göttingen:1975).
- 장일선, 「삶을 위한 지혜 히브리 지혜문학 연구」(서울: 대한기독교 사회, 2000).
- 장춘식, 「에스라/ 느헤미야」(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조한근, 「욥기 29장에 나타난 신명기적 윤리규범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제49집 (2013년 9월), 280-282.
- _____, 「요시아의 개혁운동을 통한 사회적 양극화 극복에 관한 연구」, 「신학과 현장」제1집 (2013, 11), 119-126.
- _____, 「신명기개혁사상에서 바라본 초기 구세군의 사회적 조명에 대한 신학적 연구」, 「구세군역사연구」, 제10집 (2014년 봄호), 77-78.
- 하경택,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욥기 연구」(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6).
- Albertz Rainer, *A History of Israelite Religion in the Old Testament Period*, Vol II: From the Exile to the Maccabees, (Louisville and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 Ben-Sasson H. H., *A History of the Jewish People*, (Tel Aviv: Dvir Publishing, 1969).
- Blenkinsopp Joseph, *Ezra-Nehemiah a commentary* (London: SCM Press Ltd, 1989).
- Christensen Duane, L., *Deuteronomy*, (Waco, Texas: Word Book Publisher, 2001).
- Clements Ronald, E., *The Book of Deuteronomy*, (Nashville: Abingdon Press, 1998).
- Clines David J. A., *Job*, (Waco and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89).
- Crenshaw James L., "Job" John Barton and John Muddiman(ed), *The Oxford Bible Commentary*(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_____, "Book of Job" David Noel Freedman(ed), (AYBD 3;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 Cross F. M.,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 DeVaux Roland, *Ancient Israel: Its Life and Institutions*, (Grand Rapids and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7).
- Fabry, "דַּל" *dal*" G. Johannes Botterweck(ed.), (TDOT III: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1978).
- Harris R. Laird and Archer Gleason L., Jr and Waltke Bruce K.,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Chicago: Moody Press, 1980).
- Hartley John E., *The Book of Job*, (Michigan: Eerdmans, 1988).
- Hashavyahu(Yavneh-Yam): *A New Philological Study*, Maarav 1(1978/9),33-66.
- Hobbs T. R., *2 Kings*, (Waco, Texas: Word Books Pulisher, 1985).
- Janen J. Gerald, *Job*, (Atlanta: John Knox Press, 1985).
- Kellermann D., "גֵּר ger; גֹּרֵר gur," G. Johannes Botterweck(ed.) (TDOT II;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9).
- Mazar BenJamin and Davis Moshe, *The Illustrated History of The Jews* (New York: The Israel Publishing Institute, 1963).
- Miller Patrick D., *Deuteronomy*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 Murphy Roland E., *Proverbs* (Waco,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98).
- Newsom Carol A., *The Book of Job*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 Oppenheim A. Leo, *Ancient Mesopotamia Portrait Of A Dead Civiliz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7).
- Pope Marvin H., *Job* (New York: Doubleday, 1982).
- Redditt Paul L., *Haggai, Zechariah, Malachi* (Grand Rapids: Eerdmans, 1995).
- Ringgren H., "רַשָּׁשׁ rāṣaš" G. Johannes Botterweck(ed.), (TDOT XIII;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9).
- Rowley H. H., *The Book of Job* (Michigan: Eerdmans, 1980).

검색어

경제적 양극화
사회적 약자
포로후기 사회
사회개혁

A Study on the Controversy over the Causes of Economic Polarization Reflected In the Conversation of Job and His Friends

Han-Geun Cho, Ph.D.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Salvation Army Graduate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economic polarization in the postexilic time reflected in the conversation of Job and his friends. The Book of Job describes the poor social position and situation of the postexilic period in its peculiar historical context. For this study, I used sociological criticism as a tool to interpret the text.

The Book of Job describes the nine types of the underprivileged, who have appeared as a result of economic polarization. Hebrew terms such as אֲבִיּוֹן ('*ebhyôn*/ poor), אֲנִי ('*ānī*/ needy), and דָּל (*dal*/ helpless) mean the poor as a whole. And in the Book of Job the underprivileged are classified as אֵלְמָנָה (*almānāh*/ widows), יָתוֹם (*yāṭôm*/ orphans),

עֶבֶד (*'ābad*/ slave), אִמָּה (*'āmā*/ female slave), גֵּר (*gēr*/ alien), and שָׂכִיר (*śākīr*/ day-laborer) who are all economically disadvantag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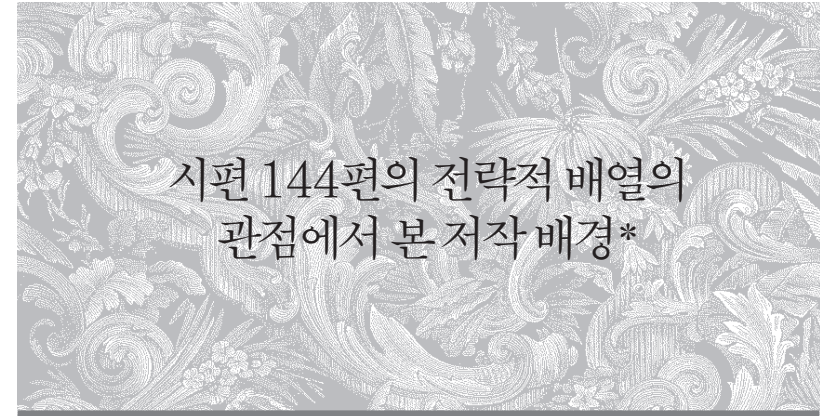
Particularly, the Book of Job shows how the ethical imperatives for the poor were not adopted in postexilic society. This paper demonstrates to a considerable degree the different views of Job and his friends, reflected in their conversations, regarding their attitudes toward the weak and the poor. Job's friends diagnosed the economic polarization of the time, which was not the normal social system under traditional Hebrew laws. So they proposed that without God punishing the greed and exploitation of the nobility, social justice cannot be achieved. They did not understand the real problems of the poor. Historically, in the postexilic period Judean society showed a great economic and societal gap between the poor and the noble class with its vested interests.

Job also strongly criticized this social phenomenon. In the postexilic period, Judah was in need of social reform because of the deepening economic polarization. But Job accepted the survival of the poor as a practical problem of economic polarization. So he presented social reformist elements for the people who had descended into poverty due to economic exploitation. The Book of Job demonstrates how the righteous noble, such as Job, had diligently helped the poor. In fact, the reformer Job, in a practical way, shows the authentic meaning of the protection of the poor.

Keywords

economic polarization
the socially disadvantaged
postexilic society
social reform

- 투고일: 2015년 07월 01일
- 심사일: 2015년 07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5년 08월 06일



김진규(백석대)

1. 들어가는 말

시편 144편은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두 가지의 다른 유형의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둘째는 시편 8편, 33편, 특히 18편과 같은 이전의 시편을 상당수 재사용하고 있는 점이다.¹⁾ 시편 144편은

* 본 연구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일부분을 더욱 발전시킨 연구임을 밝힌다. Jinkyu Kim, "Psalm 110 in its Literary and Generic Contexts: An Eschatological Interpretation" (Ph.D. diss.;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2003).

1) 시편 144편에 시편 18편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는 곳은 다음과 같다: 144:1 // 18:3[2], 35[34]; 144:2 // 18:3[2], 48[47]; 144:5 // 18:10[9]; 144:6 // 18:15[14]; 144:7 // 18:17[16], 45[44], 46[45]. 시 144:9, 15b를 시 33:2b, 3a, 12a에서 인용하고 있고, 시 144:30이 Ps 8:4를 인용하고 있다. James L. Mays, *Psalms* (IBC; Louisville: John Knox, 1994), 436. 호스펠트(F. L. Hossfeld)와 쟁어(E. Zenger)는 시편 144편이 이전의 자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의 기원은 "늦은 포로후기"라고 간주하고 있다. 게다가 높은 빈도의 아람어 어휘의 사용과 왕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를 주저한 점 등이 이의 늦은 포로후기의 기원을 지지한다고 주장한다. F. L. Hossfeld and E. Zenger, *Psalms 3*, (trans. L. M. Maloney), (Hermeneia;